

최악으로 치닫는 금호타이어 勞使

최장파업 vs 직장폐쇄 ... 지역사회 "파국은 막아야"

금호타이어가 6일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 파업 장기화에 맞서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4면>

사측은 직장폐쇄 사실을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사 정문을 봉쇄하는 한편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가 전면파업을 장기화함에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됐다"며 "노조가 파업 철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면 직장폐쇄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부분 파업, 지난달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이후에도 노사는 본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최초 제시한 협상안보다 진일보한, 동종업계 최고대우인 일당 2950원

정액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성과급에 대해서는 70만원 을 보장하고, 올해 말 실적을 합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노·사 양측의 점예한 쟁점사항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합의했으나 이에 따른 일시금 지급(사측 300만원 지급 제시)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측은 사측의 직장 폐쇄에 반발, 강도 높은 파업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적 중재를 신청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중재 불가' 라는 입장이 도출됐다"며 "노사 간 자율 협약 속에서 쟁점을 풀어나가는 의미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극단적 직장폐쇄로 타결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7일 오전 10시 소총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전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노조 탄압 중단과 직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산업 채권단, 박삼구 회장과 인수가 재협상

"최소 7000억 넘어야" 통보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6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금호산업 인수 가격을 다시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연내 매각이 가능한 시일 내에 인수가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박 회장 측에 함께 전달했다.

통상적으로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 3개월 인박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단과 박 회장 측은 이달 말까

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재협상을 하자고 결정났기 때문에 박 회장이 제시하는 가격을 다시 보고 채권단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의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의 최종 제안은 최소 7000억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 박삼구 회장의 제안이 상정되면 의결권 기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반대로 박삼구 회장의 최종 제안가가 부결될 경우 기존의 7935억원을 매각 가격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삼구 회장 측은 이 통보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금호산업 인수가 6503억원과 7935억원의 절충선인 7000억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 062)605-1114

낙싯배 참사... 세월호 후 달라진게 없다

추자도 낙싯배 전복 사고



필사의 구조 지난 6일 오전 6시25분께 추자도 남쪽 인근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낙싯배 '돌고래호' 주변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돌고래호 추자도 해역서 전복 10명 사망 8명 실종 ... 구조 3명 뿐 승선신고서 허위작성·구명조끼 미착용 ... 안전운항 허점 되풀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부실한 선박운항 관리로 낙싯배가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8명 가량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승선신고서 허위 작성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운항의 허점이 되풀이됐다. 특히 해경 역할이 축소되면서 어선의 입출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6면>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해남 선적의 9.77t급 낙싯배

선 돌고래호가 6일 오전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돼 선장 김철수(46)씨와 낚시객 등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김모(47·부산) 등 3명은 10시간의 사투 끝에 구조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돌고래호는 전남인 5일 새벽 2시께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서 낚시꾼 20여명을 태우고 출항해 2시간 뒤인 오전 3시59분께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 도착, 낚시꾼들을 내려줬다. 이후 많은 비가 내리자 돌고래호는 예정

보다 하루 앞서 낚시를 끝내고 낚시꾼들을 모두 태운 뒤 이날 오후 7시께 신양항에서 출항했다. 남성항으로 돌아가던 돌고래호는 38분 뒤 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500m 해상에서 배에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통신이 끊겼던 돌고래호는 6일 오전 6시25분께 추자도 남쪽 무인도 섬생이섬 남쪽 1.1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나자 해군과 해경은 함정 등 모두 50여척을 현장에 투입했고 공군도 해상 초계기와 헬기를 동원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였다. 중앙특수구조단과 122구조대 등 잠수요원 41명도 투입돼 수중 수색을 벌였다.

이평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돌고래호 탑승자는 생존자 3명, 사망자 10명, 실종자 8명 등 총 2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출항신고서에 적힌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지만 이 중 4명은 실제 배를 타지 않았고, 반대로 명부에 없던 3명이 탑승해 21명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돌고래호 선장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확한 승선원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승선 명부는 허위로 작성됐고, 출항지인 남성항의 입출항을 관리하던 해경 출장소는 올해 2월 폐쇄된데다, 인근에 설치된 CCTV마저 제구실을 못하면서 정확한 승선인원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사망자 시신은 해남병원(4명), 우리병원(4명), 우석병원(2명)에 안치됐다. 해남군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합동분항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실종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화전당 개장 관람객 '대박' 주말 車없는 금남로도 '효과'

10년 건립공정을 마치고 지난 4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첫 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2·16면>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정보원, 문화장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4곳의 관람객이 개관 첫날 1만 4892명(중복 관람 인원 포함)을 기록한 데

이어 둘째 날인 5일에도 1만8448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4개월별로 관람인원을 별도 집계한 뒤 집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이후 10일간 모두 1만2000명의 관람인원을 기록한 점에 견주면 의미가 적었다. 문화전당측은 이를 연차적의 조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문화원의 경우 어린이극장에서 마련한 손으로 만드는 상상력 쇼 '핸드 새드 판타지' 공연은 지난 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모두 전석 매진됐다. 어린이문화원의 사업이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예술극장이 개막작으로 무대에 올린 차이밍랑의 '당나라 승려'는 4일과 5일 두 차례 공연에서 400석 규모의 객석을 가득 채웠다. 문화전당측은 초청인사들도 적지 않았지만, 일반 관객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개관 첫날 문화전당을 방문한 광주·전남 시민들은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정보원, 문화장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등 주요 시설에서 문화를 향유했다.

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광주의 대표거리인 금남로도 지난 5일 차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돼 시민들이 문화전당과 금남로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누렸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금남공원~전일빌딩 구간 왕복 5차선 도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금호타이어는 현재 노조의 계속되는 파업과 무리한 요구로 벼랑 끝에서 있습니다 회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통해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를 지키고자 합니다

노조 파업 25일째, 매출손실 940억원

회사는 2015년 9월 6일 07시를 기하여 광주/곡성/평택공장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 중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지난 5월 말 단체교섭 시작 이후 약 4개월 동안 줄곧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유지'에 대한 약속 이행과 함께 실추된 회사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조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노조 집행부는 지금까지 25일째 무책임한 파업을 강행하며 직원들과 회사 및 지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업기간 동안에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번 주말까지 11일간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노사간 논의된 사항들을 성실하게 반영하여 회사의 '일괄제시안'을 수정, 제시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 유지 차원에서 기존보다 상향된 '평균 4.6%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고, '임금피크제'는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춘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무려 25일째 지속하고 있는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 대한 책임과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외면한 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015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요구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보전 방안까지 요구하는 등 회사의 최종 제시안을 또 다시 거부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까지 지역경제의 구성원 모두가 노조의 장기간 지속되는 파업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총 940억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과 함께 공급 차질로 인한 시장의 신뢰 하락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며, 노조의 파업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추가적인 손실은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절체절명의 국면을 만들 것입니다.

직원들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불가피하게 직장폐쇄 단행

이에 회사는 더 이상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 직원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회사와 직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불가피하게 6일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파업 중인 직원들의 적극적인 회사 복귀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업무 복귀 사원은 물론 일반직 투입 등 대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생산라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이며, 파업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과 공급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와 직원들을 위협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직장폐쇄 기간이지만 회사는 대화의 장을 열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조건 없이 업무 현장에 복귀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단체교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조 집행부에게 무책임한 파업의 중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호타이어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이번 위기를 '전하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성숙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만들고 공정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의 노사문제로 임직원 가족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호타이어와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5. 9. 7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창규 율림